

202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69) 라미네이트 박리에 의한 버블링

□ 라미네이트 박리에 의한 버블링

해설)

- 유럽에서 수입 판매된 이탈리아제 다운 코트를 드라이클리닝 했는데, 앞 몸판 부분이 달라붙는 느낌이 있고, 표면에 기포가 발생하였음.
- 사고품을 관찰하면, 특히 오른 팔 부위 전체에 기포모양이 발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. 이 제품은 겉감의 조성표시에 나일론 87 %, 폴리우레탄 13 %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일론의 기포 표면에 폴리우레탄 수지가 코팅된 것으로 추정되었음.



- 특히 충전제 제품의 경우는 충전제에 함유된 습기가 비닐커버에 넣은 채로 보관되는 등 환기성이 나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면 가수분해가 진행되기 쉬워지게 됨. 유럽 등의 여름에 습도가 낮아지는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은 크게 차

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유럽의 기획제품으로, 폴리우레탄 수지에 의한 코팅이나 본딩 소재는 열화가 격렬하며, 섬유제품의 품질관리상 일반적으로 3년 정도를 수명으로 생각하고 있음.

- 이 사례의 경우는 가수분해가 진행되어 있던 라미네이트 필름이 클리닝 공정에서 견디지 못하고, 바탕천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블링이라고 하는 기포발생 현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음.
- 가정에서의 보관뿐만 아니라 유통 재고기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환기성이 불량한 상태로 보관된 경우에 가수분해로 인한 폴리우레탄 수지의 열화가 진행된 채로 클리닝 공정에서 버블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